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 후보자들은 7월 12일 토론회를 열고 자신의 경연을 발표했다.

### “부채 감소 · 동방대학 활성화 진력”

7월 12일, 제 25대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자 토론회

7월 18일 치러지는 제 25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각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지방과 서울에서 잇달아 마련됐다. 7월 12일 한국불교전승관서 열린 후보자간 정책발표 및 공개토론회는 9일 밀양과 10일 대전에 이은 세 번째 공개 토론회다.

총무부장 능해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단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첫 질문인 종단 부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도산 스님은 “정문회를 개최해 부채가 생긴 과정을 중도들이 제대로 알려야 한다. 이것이 부채해결의 열쇠다. 그런 후 경고성 백서를 발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를 말했다.

수열 스님도 “인천 용공사에 3대에 걸쳐 관리운영권을 주면 15억에 대한 부채를 책임질 용의도 있다고 제안을 받았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단을 위한 일하기에 누가 당선되든 고려한다면 부채 해결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태고종립대학인 동발불교대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수열 스님 “용공사 활용해 종단 부채 해결”

월운 스님 “종립불교대학 지어 종단에 헌납”

백은 스님 “동발불교대 정식 허가 받겠다”

도산 스님 “위원회 구성해 공찰 합리적 운영”

에 헌납하겠다고 각서도 썼고 학교부지도 준비해 왔다. 당선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다. 300명이 동시에 기숙하며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은 스님도 “내가 당선되면 임기 내에 틀림없이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게 할 것이다. 학교 부지는 광역단체장과 협의해 찾아볼 것이며, 지방 교양대학은 중앙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 태고종 교육을 뒷받침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도산 스님은 “전국을 돌면서 기부를 받아 학교를 발전시키며, 종립학교 규칙도 새로 제정할 것이고 인천 용공사의 4만평 부지를 활용해 학교를 이전할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종단 공찰이 사유화돼 매각된 원각사처럼 종단 공찰을 삼보정재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수열스님은 “원각사는 사찰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찰이다. 사찰 매매과정과 현재 소송 진행 과정, 남아있는 잔액 등을 소상히 밝혀서 자진해서 종단에 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월운스님도 “태고원은 이사진들의 이해에 좌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독 기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고 종단의 재산처분에 따른 스님 관련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산스님은 “위원회를 구성해 공적기구 심의의 결을 통해 명확히 집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일 · 배현진 기자

## 90여일 남은 비방·폭로에 멍드는 佛心

그간 조계종 수뇌부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밝혀 온 포항 오여사 前 주지 장주 스님이 자신의 상습도박 사실과 함께한 스님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폭로는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9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흑색선거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주 스님은 7월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포함한 상습도박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파계행위를 인정하고 대구지방법검찰청에 자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주 스님이 공개한 자수서에 따르면 자신을 비롯한 16명의 스님은 전국 유명 호텔의 특실과 사찰 인근 모텔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했으며, 회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도박자금으로 유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은 총무원 대변인인 주경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장주스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장주스님의 이번 주장과 같이 종단 주변에 떠도는 상습 및 해외도박 관련 유언비어는 이미 종단의 제적승정환영(법명·성호)이 수차례 사법기관에 제소했

으나 모두 ‘각하’ 종결됐고 현재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주 스님이 근거 없이 음해성 주장을 하는 것은 오여사 주지에 연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종단 내외에서는 회자

장주 스님, 상습도박자 폭로

본인 포함 중진 16명 거론

조계종, “허위 사실” 일축

선거 앞두고 폭로전 우려

이전엔 피문서 음성 유포

최근 내부고발 형식 빌려

종법 통해 문제 제기해야

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을 음해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하는 무모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주 스님은 일간지들과의 인터뷰에서 “20년간 오여사 주지를 해 아무런 미

련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욕심이나 사리사욕이 있다면 나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자수할 수 있겠느냐”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하지만, 언론과 사정기관을 통한 일방적인 고발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불교계 전반이다. 특히 선거를 9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불거져 나오는 잇달은 비방과 폭로는 자칫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과거 과열 선거가 피문서 유포나 금품 살포 등 음성적 방법에서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일반 언론 폭로와 사법기관 제소 등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고발은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고발은 흑색선거에 머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정안)가 7월 11일 발표한 답화문도 이 같은 성격이 짙다. 조계종 호법부는 답화문에서 “최근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 행위로 인해 종단의 위상과 화합승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며 “종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시정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피와 땀으

로 일군 종단의 위계와 질서를 유린하는 해중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종법이 정한 시정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극적이고 현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폭로와 비방 행위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신속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만들자는 불교계 각계의 목소리도 높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향척)는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깨끗하게 치루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결의문에서 “종법이 정한 정상적 절차와 방식을 외면한 일체의 행위에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금권, 매관 매직, 비방 등 선거 3대 악행을 단호히 배격하고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선거보다 더 좋은 방안은 불교 공동체 정신이 담긴 대중공의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며 “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져야 하는 데 벌써부터 폭로·비방전으로 흐르면 안된다. 종단에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 ‘불교광장’ 창립... 거대 종책모임 탄생

11일, 성직·법보·지흥·성문 스님 공동대표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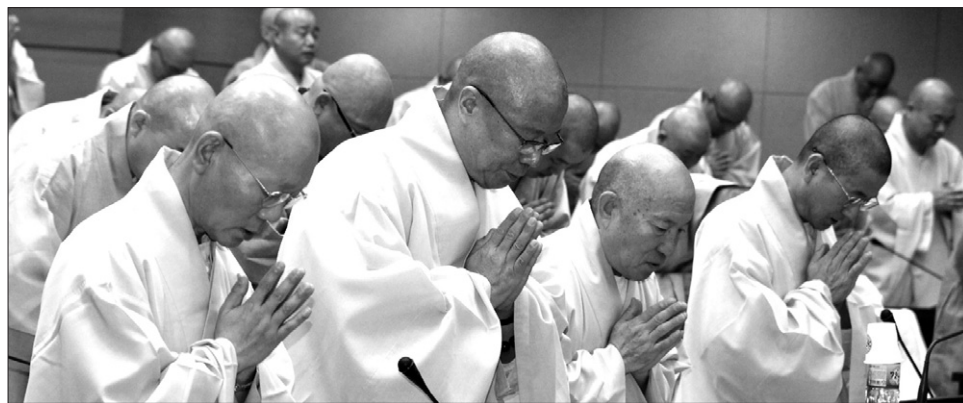
지난해 백양사 승려 도박 사태로 순차적으로 해체를 선언했던 종책 모임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1년여 만에 다시 창립됐다. 새로 창립된 종책 모임에는 중앙총회의원과 19개 교구본사 주지, 수발사 주지 스님 등이 참여해 그 외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향후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행보가 주목된다.

화엄광장과 前 무량회, 무소속 중앙총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종책모임 불교광장은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회칙 정관을 제정했으며, 고문과 대표,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고문에는 前 호계원장 범 등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이 추대됐으며, 공동대표는 중앙총회의원 성직·법보·지흥 스님과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이 선출됐다.

부대표에는 성월·원경·범안·정문·정도 스님이, 운영위원회에는 정묵·진화·정년·삼해·장명·합결 스님이 이름을 올렸으며, 감사에는 중앙총회의원 태연·초적 스님이 사무처장에는 덕문 스님이 선임됐다.

또한 창립총회에 참석한 용주사, 신홍사, 월정사, 범주사 등 19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화엄광장과 前 무량회, 무소속 중앙총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종책모임 불교광장은 7월 11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前 화엄·무량회·무소속 의원

19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참여

10월 선거 최대 세력 ‘금부상’

은 지도위원단에 합류하게 돼 유례없는 최대 종책모임의 탄생을 알렸다.

조직 구성 이후에는 새로 선출된 공동 대표 스님들의 인사말이 진행되기도 했다. 성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대표 소임을 맡겨줘 어깨가 무겁다”며 “그간 계파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지만, 이번

불교광장 창립이 한국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광장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내적으로 승가의 화합과 안정, 외적으로 자비정신의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승가 화합과 아름다운 전통을 대중에게 보이고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시대정신에 부합한 통합과 결집”으로 종단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 후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종일 기자

## “중앙기관 스님부터 내년 과세 도입”

주경 스님, 불교광장 세미나서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자부터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주경 스님은 7월 9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주제로 열린 불교광장 창립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스님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단 입장은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며 “소득에 따른 과세를 반대할 이유는 없으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종단 소임자 스님들의 경우 내년부터라도 세금을 내도록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과세를 위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주경 스님은 “과세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를 종단 방침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종무직과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일부 스님을 제외하면 정기 소득이 없는 스님이 많고, 안거기간의 특수성도 고려돼야 한다. 세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지 않은 스님들을 위해 정부 측의 설명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불이성 법륜사 일요법회

불이성 법륜사는 태고종 창종주인 대륜스님께서 1946년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의 일번지를 주창하며 당대의 훌륭한 법사와 포교사를 초빙하여 1950년대 불교계 최초로 일요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덕암스님 당시까지 이어 오던 일요법회가 지금은 맥이 끊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납이 2012년 주지로 부임하며 첫 번째 발원한 것이 일요법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법륜사 일요법회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법륜사로 오십시오.

법륜사 ‘일요법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매주 주제별로 법석을 여는 일요법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법회안내**

- \* 첫째주 : 명상기도 법회
- \* 둘째주 : 사경기도 법회
- \* 셋째주 : 대다라니기도 법회
- \* 넷째주 : 천수경 강의

◆ 대 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 시작일 : 9월 첫째주 일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법륜사 3층 대불보전

◆ 문 의 : 불이성 법륜사 종무소 (02-732-2710, 3920)

## 불이성 법륜사 주지 도학 혜일